

 국토교통부		보도참고자료	
		배포일시	2018. 7. 22(일) / 총 3매(본문 2매, 첨부 1매)
담당 부서	항공기술과	담당자	• 과장 오성운, 사무관 강경범, 주무관 장여진 • ☎ (044) 201-4284, 4311, 4293
보도일시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
‘아시아나 대한항공 계열 LCC 정비인력 권고기준에 미달’ 보도 관련

- 국토부가 대한항공, 아시아나항공계열 LCC 정비사 부족과 관련해 ‘대형항공사 봐주기식’ 행정을 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.
- 우리 부는 LCC에서 항공기 비정상운항이 자주 발생해 ‘16.4월 「LCC 안전강화대책」을 수립하면서 당시 가장 많은 정비사를 확보한 항공사를 기준으로 **상향 평준화**를 유도하고자 권고 기준(항공기 1대당 12명)을 마련한 것이며,
 - 현재 진에어, 에어부산, 에어서울이 권고기준에 미달하나 ‘20년경 이를 충족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’* 우리 부는 각 항공사들의 이행상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.
 - * 시장에서의 숙련정비사 배출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충해 가고 있으며, 이를 지원하기 위해 우리부 주관으로 지정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「경력 정비사 양성방안」도 추진 중임
-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는 운항스케줄 대비 정비인력, 예산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특별점검(7.22~8.3)에 착수하였고, 다른 국적사의 정비인력 운영실태도 전수조사해 나갈 계획입니다.

- 항공기 1대당 12명 기준을 세부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해외 사례와 제작사 매뉴얼을 조사하고 항공사별 보유기종, 정비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정비인력 세부 판단기준 마련도 검토하고 있습니다.

- 또한 국토교통부는 「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」 평가지표에 따라 항공기 1대당 정비사 12명을 충족하지 못한 항공사에 대해선 운수권 배분시 감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.

◆ 「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」 [별표] 평가지표

1. 안전성 및 보안성

사. 항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한 노력과 투자 정도

- 항공법 등 국토교통부장관의 안전권고 사항(조종사 및 정비사 적정보유 기준) 충족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충족하는 항공사에 1.5점을 주고, 나머지 항공사에는 그 달성도에 따라 0.5점 차이의 범위에서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점수를 준다. 다만, 운항 실적이 1년 미만인 항공사에는 1점을 준다.

< 관련 보도내용 (경향비즈 7.22) >

- ◆ 국토부가 아시아나 계열 LCC 정비사 부족 용인해 안전문제 키웠다
 - 국토부의 '대기업 봐주기식' 항공행정이 기존 정비인력의 과부하로 이어져 최근 아시아나 항공 비행기 회항 등 각종 안전문제의 원인을 제공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 강경범 사무관(☎ 044-201-431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※ (참고) 진에어, 에어부산, 에어서울 정비사 충원계획

구분	정비현황	정비사 추가 확보계획
진에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B737 기종 : 자체수행중 ○ B777 기종 : 대한항공 위탁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B737 기종 : '19년까지 정비사 12명 기준 충족 예정 ○ B777 기종 : '20년부터 자체수행 예정
에어부산	아시아나항공 위탁	'18.10월부터 자체수행 예정
에어서울	아시아나항공 위탁	'20년 자체수행 예정 (항공기 10대 규모 도달시)
제주항공	자체수행중	충족
이스타항공	자체수행중	충족
티웨이항공	자체수행중	충족